

# 영암 금정에 대규모 풍력발전소 조성

### 군, 내년 6월까지 1200억 투입 양해각서 체결

내년 6월 영암군 금정면 일원에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된다. 영암군은 지난 14일 영암군청 남산실에서 영암 풍력발전(주) 대표이사 서기섭과 120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풍력발전 단지는 오는 2013년 6

월 준공을 목표로 금정면 연소리 산 340번지 일대에 조성된다. 영암 풍력발전은 2MW급 풍력 발전기 20기를 건설, 매년 2만 세대가 사용 가능한 9만 M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되는 전력량은 1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연간 4만여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영암풍력발전은 풍력단지 조성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 시공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장학사업과 오토 캠핑장, 승마장 등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풍력 발전단지 조성 MOU 체결이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탄소 포인트 제 등 기후변화 대응 전략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 풍력발전은 국내 유일의 풍력분야 EPCM(설계·구매·시공·운영을 총괄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풍력산업)에 도전하는 대명 GEC사의 자회사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 선도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 화순군 신규 택지개발 나선다

### 읍지역 극심한 주택난 인구 이탈로 이어져

### 삼천·유천리 등 5곳 타당성 조사 용역 검토

화순군이 화순읍 지역의 극심한 주택난으로 인한 인구이탈 방지 등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에 나섰다. 군은 화순읍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의 이주와 화순 전담대 병원, 백산 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식품산업단

지 등 화순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주택수요에 대비, 택지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택지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2월부터 시행, 삼천리·유천리·교리·만연리·향정리 등 5개소의 후보지에 대해 기술적·경제적

측면을 검토하고, 택지개발 제1후보지인 삼천·광덕리 일원(14만2298㎡)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코자 지난 23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택지개발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장광수)를 구성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고를 철회해 줄 것을 군에 요청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대책위는 최근 군수 면담시 "토지보상가격을 현 시가로 적용하지 않으면 지주들 입장에서 큰 손해가 불가피하다"면서 택지개발 계획 전면 철회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은 "주택 공급부족으로 주택난이 가중돼 신규 택지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성과 군 발전을 위한 공익성을 이해시키고, 개인 토지 소유자의 사적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주민 의견은 택지개발 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 영산강 전통 돛배 다시 뗏다

###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바람칼호' 출항식 뱃길탐사 나서

영산강을 오갔던 전통 돛배가 다시 모습을 보였다.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성낙준)는 15일 나주 영산포 등대에서 전통 돛배 '바람칼호' 출항식을 갖고 영산강 뱃길 탐사에 나섰다. 이 행사는 영산강 하구엔 축조로 끊어졌던 영산강 뱃길이 다시 열리고 복원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돛배인 '바람칼호'는 이날 영산포 등대를 출발해 회진나무, 석관정, 문탄 나무, 나불도를 거쳐 17일 오후 목포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에 도착할 예정이다. 항해 전문가와 해양문화재 연구소 직원 등 3명은 돛과 노만을 이용해 영산강을 내려오면서 주변의 옛 나루터와 유적도 꼼꼼히 둘러보면서 목포 앞바다까지 내려온다. 이 배는 지난 4월 초 코리아나 마리타임 합성옥 대표가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에 기증했다. 전통 배인 사후선(尙候船·적군의 동향을 살피거나 어선 등을 감독할 때 쓰는 작은 배)을 모티브로 해 재래식으로 제작했다. 한편 배 이름 '바람칼'은 '하늘을 나는 새의 날개'가 바람을 가르는 듯하다는 데에서 유래한 말로 '하늘을 나는 새의 날개'를 뜻하는 순수 우리말이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



# 화순군 '교육도시' 탈바꿈

### 군의회 추경 22억 등 총 예산 53억 늘려 시책 지원

화순군은 최근 열린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지원예산 22억원이 추경으로 추가 편성됨에 따라 본 예산액 31억원을 추가, 총 53억원을 교육지원에 투자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에 50억원 이상을 들여 ▲전국 최초의 고교생 수업료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방과후학교(학교 보충수업) 지원 ▲영어교육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해 왔다.

이러한 군의 지속적인 지원 결과 학력이 크게 신장돼 서울소재 우수대학에 2010년도에 117명, 2011년도에 161명, 2012년도에 202여명이 합격하는 등 매년 우수대학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다. 군의 교육지원 예산은 고교생 수업료와 학교 보충수업비, 친환경 급식비, 원어민 영어강사 등을 관내 학생에게 무상지원토록 교육청과 각 학교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평균 56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주 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과 후 학습반 운영 ▲업무 돌봄 교실 운영 ▲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9억 8000만원을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한다. 또 화순고 등 3개 인문계 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해 5억 6000만원을 지원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 지원을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화순군을 찾아오는 교육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 국내 첫 인공종묘 이용 꼬막생산

### 전남수산과학원, 자연산→인공부화 성공

자연산 꼬막에서 인공부화를 거쳐 종묘 생산에 성공했다. 이번 개가는 당시 생산된 종묘를 3년간 키워 이 성패가 산란, 부화를 거쳐 어린 종묘 생산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자연산 종패를 채취해 인공종묘를 생산할 때 보통 생존율이 12% 안팎에 불과하지만 1세대 종패는 20~25%에 육박했다. 강진지소는 생산된 치패 가운데

100kg가량을 어촌계와 어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강진지소 김용만 해양미생물 담당은 "수년간 교배번식을 통해 우수형질의 어미 꼬막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이번 성공의 의미가 있다"며 "안정적인 꼬막 인공종묘 생산 기반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어가소득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 전 북

### 남원시내 대형마트 3곳 휴무 효과

### 전통시장·동네슈퍼 매출 20~25% 상승

남원시 준대규모 점포들이 매월 2회 의무 휴무함에 따라 고객들을 전통시장과 주변 슈퍼마켓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내 준대규모 점포 3개소가 매월 2회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무를 운영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평균 매출이 20~2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래 개점 이후 주말에 준대규

모 점포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공설시장과 용남시장내 식료품·생선 가게에서 과일과 채소·건어물 등을 구입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함으로써 매출증대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권정현 공설시장 상인회장은 "평소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로 쇼핑을 갔던 사람들이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 스스로도 서비스 개선과 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주부 근력강화 수영이 최고

순창 지역 주부들이 최근 군 실내수영장에서 통증완화와 근력을 강화시키는 수중운동을 배우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애기장대'로 방사선 누출 알아낸다

〈생떡잎 식물〉

### 원자력연구 동성 박사팀

### 선별가능 유전자칩 개발

우리나라 들란에 흔히 자라는 식물 중 하나인 '애기장대'를 이용해 방사선 누출과 농작물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감마선에 노출되지 않은 애기장대(왼쪽)와 감마선에 노출돼 생육이 저하된 애기장대.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정연호) 첨단 방사선연구소 김동성 박사팀은 최근 '애기장대'에 방사선 일종인 감마선을 쬐었을 때 감마선량 증가에 비례해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자 4종을 찾아냈다. 또 '애기장대'의 RNA 분석을 통해 특정 공간에 자라는 식물의 감마선 노출 여부와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개발된 기술은 기존의 방사선 측정 지표식물에 비해 식물 생태계가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여부 뿐 아니라 노출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앞으로 다양한 방사선에 공통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선별해 넣으로써 식물의 방사선 누출 여부와 정도를 손쉽게 관별할 수 있는 유전자 칩(gene chip)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방사선 연구소가 방

사선 기술 분야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센터로 공식 지정됐다. 연구소는 15일 다우드 모하마드 IAEA 사무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센터 현관 전달식을 가졌다. 연구소는 환경보전처리, 신소재개발, 방사선 식품공학 등 방사선 기술 3개 분야에 IAEA 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er)로 선정됐다. /전북취재본부=빅기섭기자 parkks@

### 단 신

### 전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3곳 연내 해제 추진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완주군과 군민이 요구한 대로 전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3개소를 올해 안에 해제키로 했다. 전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행위 및 재산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완주군 주민을 위해 ▲상관 26.655km ▲삼천

0.284km(1982년 지정) ▲원당 0.104km(1980년 지정) 등 모두 27.042km의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시는 이달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도에 신청 후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해제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시 시·청각 장애인용 수신기 보급 신청 접수

군산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신청을 받는다.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은 방송통신 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모든 국민이 방송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펼치는 사업으로, 청각 장애인용 자막방송 수신기인 일체형 TV와 외장 수신기, 시각 장애인용 화면해설 방송수신기(DVS)가 보급된다. 문의(063-450-4310)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남원시 '귀·다·공'과 함께 '영화 보는 날' 운영

남원시는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 공무원(약칭 귀·다·공)들과 함께 매월 2회(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영화 보는 날'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한다. '귀·다·공'은 남원시가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생활과 여가선용 등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지난 14일 시내 '메가박스'에서 이환주 남원시장과 공무원 80명, 귀농·귀촌인 60명, 다문화가정 35명 등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화 보는 날' 행사를 가졌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노인회 정음시지회 경로당 가스 차단기 설치

대한노인회 정음시지회는 화재 등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200여개소의 경로당에 가스 자동 차단기를 설치했다. 이번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는 시장 나중수에 차단기 설치에 따른 지원을 요청,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루어졌다. 인성정밀은 1대에 10만원 상당하는 차단기 200여대(2000만원)를 설치·지원했다. /전북취재본부=빅기섭기자 parkks@

### 76개 업체 폐기물부담금

### 9억6400만원 부과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처장 임재욱)는 최근 관내 76개 제조업체에 9억6400만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징기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액수는 17%, 부과액은 13%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2003년부터 운영중인 '폐기물 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과 1회용 기저귀 등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